

## 【 국내금융 뉴스 】

## 2009년 상반기, 생보사 해외점포 3.5백만 달러 손실

- 2009년 상반기 해외 진출 생명보험회사는 상위 3개사(삼성, 대한, 교보)를 중심으로 생명보험업과 금융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.
  - 지역별로는 미국에 진출한 기업이 3개사로 가장 많으며, 중국(2), 태국(1), 베트남(1), 영국(1) 등에도 현지법인을 운영 중임.
  - 정보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주재사무소의 수도 미국 등 6개국에 16개소가 있음.
- 해외진출 현지법인의 '09.6월말 총자산 규모는 전기말 대비('08.12월) 32.1% 증가한 299.2백만 달러를 기록함.
  - 생명보험업 관련 총자산 규모는 199.6백만 달러로 전기말 대비 51.9% 상승하였는데, 이는 '09.4월 영업개시한 대한생명의 베트남법인 자산이 신규 합산된 데 기인함.
  - 반면, 금융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은 전기말 대비 4.8% 상승한 99.6백만 달러를 기록함.
- 생보사 해외점포의 전체 운용자산은 유가증권이 46.9%(140.2백만 달러)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, 현·예금의 비중도 32.5%(97.3백만 달러)에 달함.
  - 생명보험업 해외점포는 총자산의 47.7%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43.6%를 현·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반면, 금융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의 해외점포는 총자산의 45.1%를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41.3%를 부동산으로 운용하고 있음.
- '09.6월말 생보사 해외점포의 당기손익은 금융투자업 및 부동산임대업에서 1.7백만 달러의 당기순이익을 시현함에도 불구하고, 생명보험업에서 5.2백만 달러의 당기손실로 인해 3.5백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함.
  - 이에 금융당국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성장세 둔화 및 재무건전성 악화에 대비하도록 해외점포의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할 방침임.

(FY09 상반기 생보사 해외점포 등의 영업실적 현황, 금융감독원 생명보험서비스국 생명보험총괄팀, 9/28)